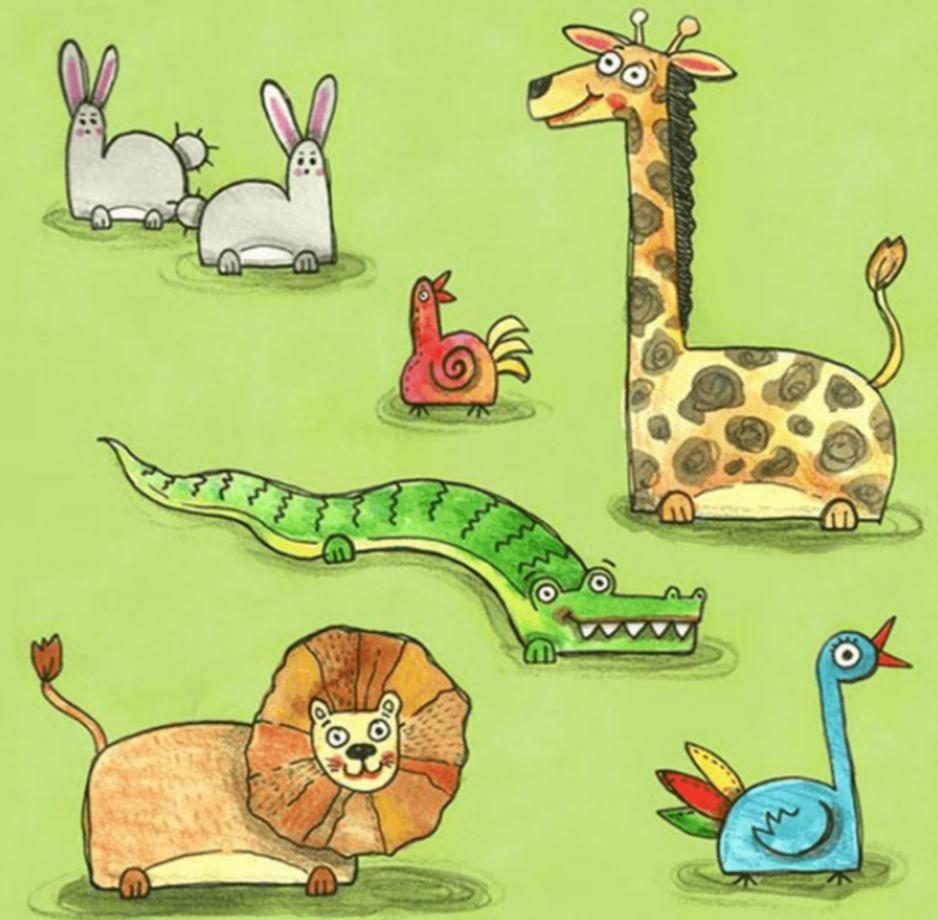


뱀이 다리가 없는 이유

원작자 | 무투기 카문디, 비한 드 야허
글 | 김은파

원작 글 | 무투기 카문디 (Mutugi Kamundi)
원작 그림 | 비한 드 야허 (Wiehan de Jager)
글 | 김은파
편집 | 김은파, 이수인
편집 디자인 | 이해명
목소리 | 황창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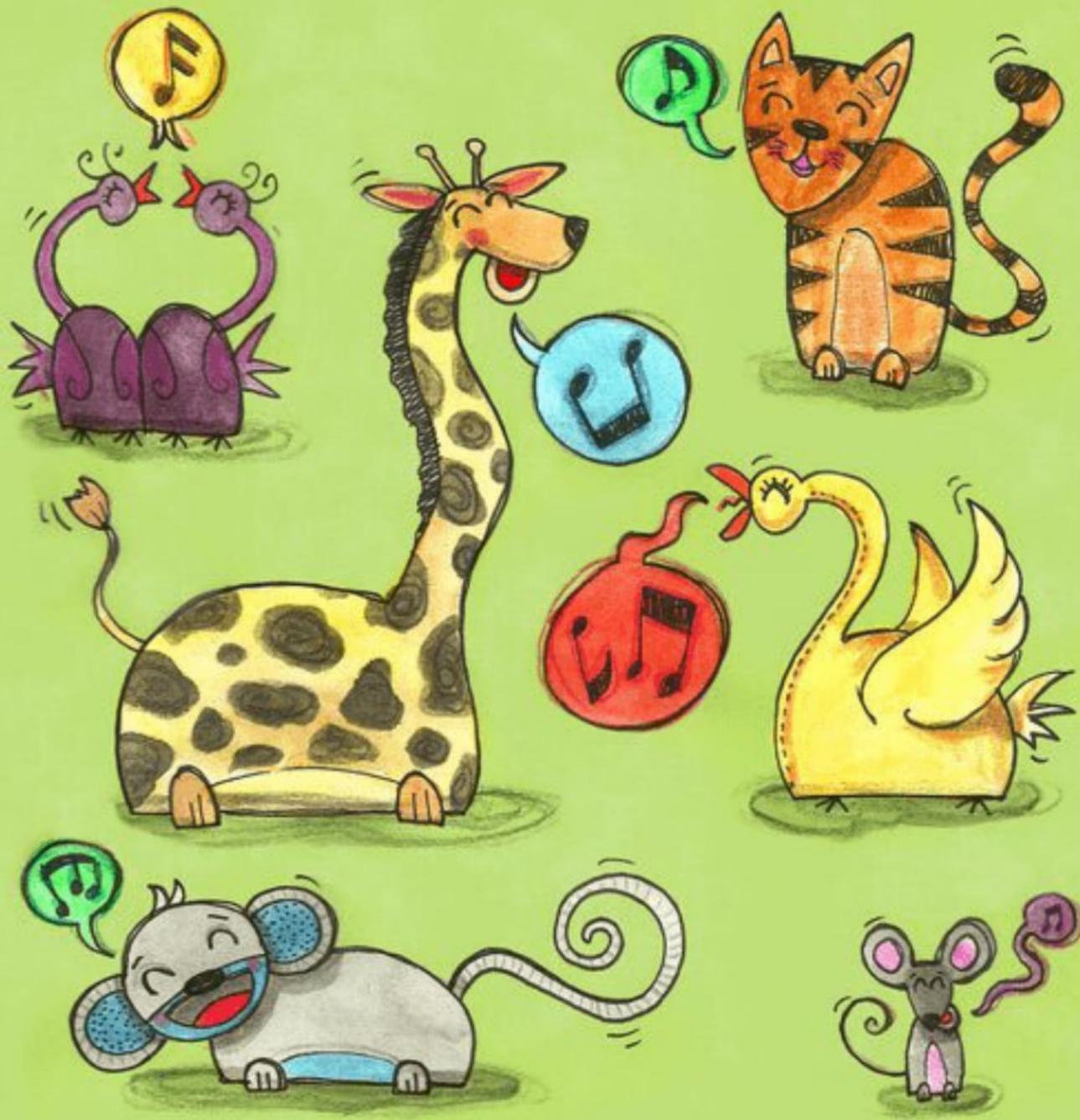




아주 먼 옛날, 동물들은
다리가 없었어요. 모두
기어다녔지요. 오직 사람만
걸을 수 있었어요.



어느 날 마법사는 동물들에게
다리를 주기로 마음먹었어요.
동물도 사람처럼
걸어다녔으면 했기
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 소식을
동물들에게 알렸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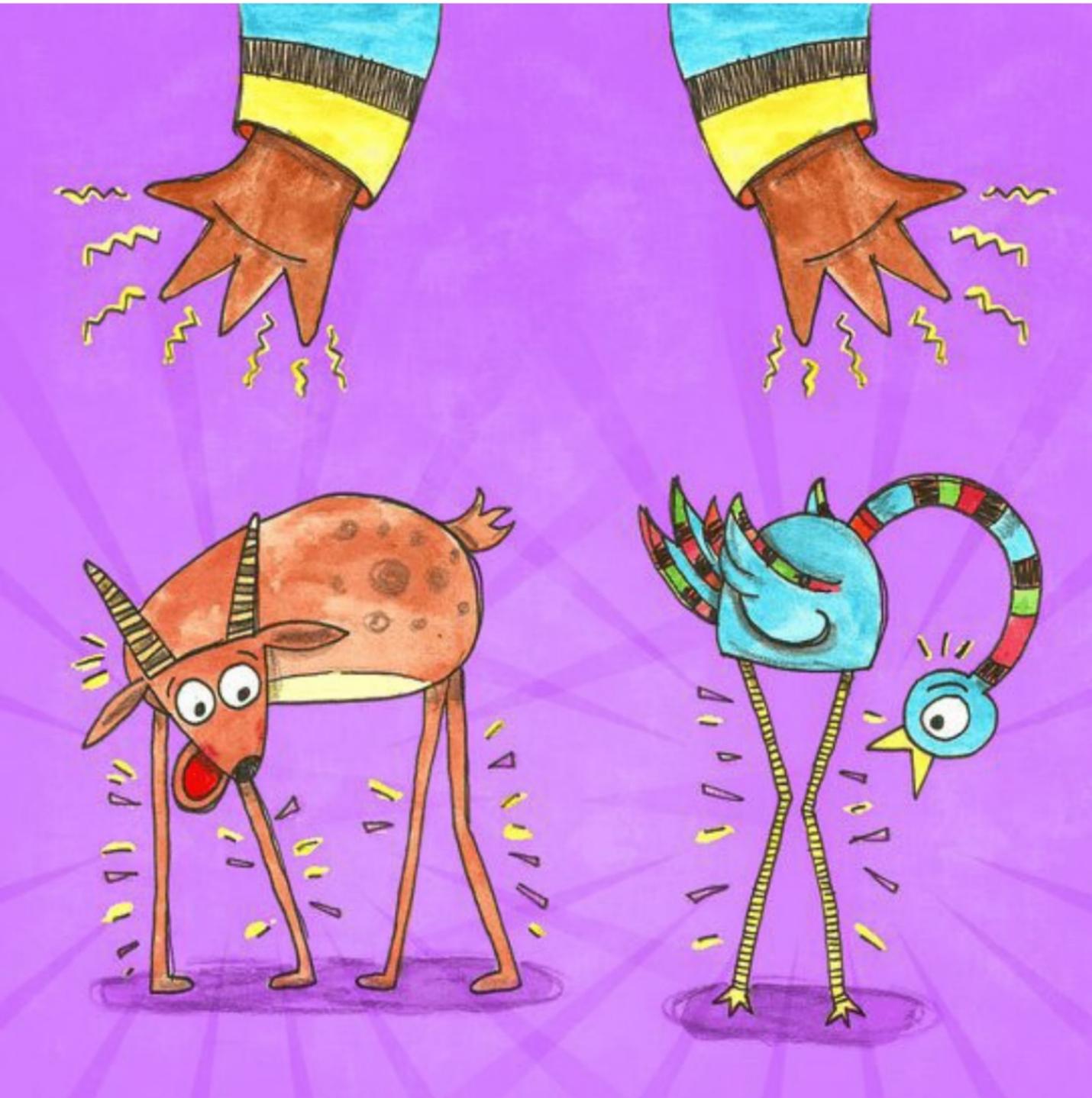
동물들은 이 소식을 듣고
매우 기뻐했어요. 그래서 노래를
부르고 춤을 추면서
축하했어요.



생쥐는 악어에게 말했어요.
“다리가 생기면 우리도 키가
커질 거야. 그러면 더 멀리 볼
수 있겠지.”



마법사가 다리를 주는 날이
되었어요. 모든 동물이
산꼭대기에 있는 마법사의
집으로 갔어요.



마법사는 짐승들에게 다리를
네 개씩 주고, 새들에게는
다리를 두 개씩 주었어요.
다리가 생긴 동물들은 모두
좋아했어요.



마지막으로 마법사에게 온 것은 지네였어요. 마법사는 물었어요.

“아직 여기 오지 않은 동물이 또 있니?”

지네가 대답했어요.

“아니요, 제가 마지막 동물이예요.”



마법사는 생각했어요.
‘이제 다리가 필요한 동물이
더 없으니 남은 다리는
지네에게 모두 주어야겠어.’
그래서 지네는 셀 수 없을
정도로 많은 다리를 받았어요.



지네가 떠난 뒤에 뱀이
왔어요. 지네가 마지막 동물이
아니었던 거예요! 뱀이
말했어요.

“마법사님, 저에게도 다리를
주세요.”



“이제 남은 다리가 없단다. 왜 이렇게 늦게 왔니?”

마법사가 물었어요. 뱀이 대답했어요.

“깜빡 잠이 들어서 늦었어요.”



마법사는 뱀에게 줄 다리가
남아 있는지 샅샅이
찾아보았어요. 하지만
아무것도 찾지 못 했어요.



마법사가 말했어요.

“남은 다리가 정말 하나도
없구나.”

뱀은 슬퍼하면서 돌아갔어요.

그래서 뱀은 아직까지 다리가
없이 기어다닌답니다.

“뱀이 다리가 없는 이유” is a derivative of “Maguru apatiana miguu” by Mutugi Kamundi and Wiehan de Jager, used under CC BY 4.0.

“뱀이 다리가 없는 이유” is licensed under CC BY 4.0 by Enuma, Inc. &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.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, visit <http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/>.

© 2019 by Enuma, Inc. &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